국가 소송 '묻지마 상소' 막는다

법무부, 내달 중 고검에 '상소심의위원회' 설치
변호사·교수·법학자 등 외부 법률전문가 구성
상소 여부 결정 시 심의 결과 원칙적으로 반영

국가·행정소송시 국가와 행정청의 무분별한 상소를 막기 위한 기구가 설치된다.

법무부는 올해 11월 중으로 전국 5개(서울·대전·대구·광주·부산) 고등검찰청에 '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심의위)를 발족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그동안 각종 국가·행정소송에서 국가나 행정청의 기계적·관행적 상소로 인해 소송 지연, 국민 불편, 국가재정 낭비 등이 초래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심의위는 변호사, 법학자 등 외부 법률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중요 사건에 대한 상소 결정 과정에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상소의 법리적 정합성과 적정성 제고를 꾀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국책사업 등 정부시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건 ▲소가 20억원 이상 등 국가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건 ▲과거사 재심 무죄 확정사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등 사회 이목을 끄는 사건 등을 심의 대상 사건으로 정했다.

이 외에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도 포함된다.

법무부는 국가·행정소송에서 국가·행정청의 상소제기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상소기각률도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특히 항소에 비해 상고기각률이 현저히 높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15~2016년 국가·행정청이 패소한 전체 소송 중 항소가 제기된 건 3541건으로 47.3%, 상고는 1860건으로 42.4%이다. 이 중 항소는 1604건(45.2%)이, 상고는 1379건(74.1%)이 기각됐다.

심의위가 설치되면 국가나 행정청은 상소권 행사 여부 결정 시 원칙적으로 심의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심의위의 결과 다른 결정을 한 때에는 서면으로 위원들에게 이유를 고지해야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심의위 외에 사실심 소송수행 역량을 강화하고 상소기준을 정비하는 등 적정 상소권 행사를 위한 개선방안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시스

전문대 수시 지원자 72만 5000여명…3년 연속 ↑

2018학년도 전문대학 수시 1차 모집 평균 경쟁률은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한 6.6 대 1을 기록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는 지난달 11~29일 실시한 '2018학년도 전문대학 수시 1차모집 지원 결과'를 23일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전국 133개 전문대학에서 총 11만781명(정원 내 전형 기준)을 모집하는데 총 72만5946명이 지원해 평균 지원율은 6.6대 1로 나타났다. 이는 2017학년도(71만7853명)보다 1.1%(8093명) 늘어난 것이다. 전문대 수시 1차모집 지원 인원은 2016학년도 68만627명, 2017학년도 71만7853명, 2018학년도 72만5946명으로 3년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학령인구 감소와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현장 실용교육 중심, 취업률 향상 등으로 전문대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한 것으로 전문대교협은 보고 있다.

수도권 전문대는 3만4551명 모집에 35만6774명이 지원해 10.3 대 1, 비수도권은 7만6230명 모집에 36만9172명이 지원해 4.8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전공분야별로 보면 항공운항과·항공서비스과 등 항공분야의 경쟁률이 20.1 대 1로 가장 높았다. 실용음악과·공연음악과 등 실용예술분야(13.8 대 1)와 취업률이 높은 간호학과(13.0 대 1)가 뒤따랐다.

전문대 수시2차 및 정시모집 주요 사항은 11월 중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홈페이지(http://www.kcce.or.kr)와 전문대학포털 (http://www.procolleg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설악산 올 첫 상고대 관측 23일 오전 설악산 중청대피소 일대에서 올 들어 첫 상고대가 관측됐다. 상고대는 영하의 기온에서 나뭇가지나 풀에 내려 눈처럼 보이는 서리를 말한다.

세월호 유가족 등 3개 단체, 4·16재단 설립 본격화

세월호참사 유가족과 시민단체들이 4·16재단 설립을 본격화한다.

23일 4·16가족협의회 등에 따르면 4·16가족협의회, 4·16연대, 4·16안산시민연대 등 3개 단체는 다음달 4일 오후 2시 안산시청 대회의실에서 '4·16재단 설립 추진대회'(선포식)를 연다.

가족협의회 등은 이번 행사에서 재단 설립 논의 경과를 설명하고,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선포할 예정이다.

또 재단법인의 정관 마련, 발기인대회, 후원회 조직 등 설립 절차를 소개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재단 설립 출연금 10억원은 세월호 피해자와 시민들의 모금으로 마련된다.

재단 설립 발기인으로 참여하는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은 가구당 500만원을 출연금으로 내 5억원을 만든다.

참사 피해가 많았던 안산 단원고 등학교 희생학생 유족들은 80여가구(전체 4억여원)가 출연금 지급을 약속했다. 출연금 납부자 명단에는 피해자의 이름이 기재된다.

피해자 가족의 출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5억원은 시민 발기인 출연금으로 마련된다. 가족협의회 등은 100만원씩 출연금을 낼 수 있는 시민 발기인 500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재단의 후원조직인 기억위원회는 1만원씩 후원하는 100만명의 위원을 모집한다. 재단 사무실은 안산에 둘 예정이다.

4·16재단 설립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근거로 한다.

특별법에는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고 대형 재난사고 재발 방지 등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되는 재단(국무총리실 소속인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가 선정한 재단, 4·16재단으로 함)에는 설립 후 5년 동안 정부가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특별법 상 4·16재단의 주요 사업은 ▲추모시설의 운영·관리, 추모제 시행 ▲안전사고 예방, 안전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 ▲ 피해자의 심리·생활안정, 사회복귀 등 지원 등으로 명시됐다.

보코하람 소행 추정 연쇄 자폭테러 13명 사망

나이지리아 동북부 마이두구리에서 22일(현지시간) 연쇄 자살 폭탄 테러가 발생해 최소 13명이 사망했다.

터키 언론 아나돌루 에이전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20분께 마이두구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첫 번째 자폭테러가 발생한 뒤 근처에서 두 명의 여성 자폭테러범이 테러를 자행했다. 부상자는 18명에 이른다.

경찰청장은 "세 명의 자살폭탄범이 서로 다른 지역에서 급조폭발물(IED)을 이용해 테러를 벌였다"며 "보코하람의 소행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청한 목격자는 "테러범들이 버스 정류장 근처의 식당에 몰려든 사람들을 겨냥했다"고 말했다.

나이지리아는 최근 들어 급증하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보코하람의 테러로 몸살을 앓고 있다. 2주 전에도 도시 외곽에서 네 명의 테러범이 자살 폭탄 테러를 벌이기도 했다.

국제앰네스티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보코하람의 공격으로 나이지리아에서 최소 223명의 민간인이 사망했다. 앞선 네 달에 비해 7배 증가한 수치다. 8월의 민간인 사망자만 1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캐나다서 경찰차 들이받은 20대 남자 사살

캐나다 서스캐처원 주에서 경찰이 자기차로 일부러 경찰차를 들이받은 22세의 남성을 총격 살해했다고 캐나다의 CTV가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경찰은 21일 밤 한 남자가 차 안에 탄 채 여러 명으로부터 총격을 당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서스캐처원 주의 노스 배틀포드로 출동했다.

경찰이 두 개의 도로가 교차하는 교차로에 왔을 때 피살된 남자가 자기 차로 경찰 차를 일부러 들이 받았으며 경찰은 그의 행동에 대한 반격으로 총격을 가했다.

그 남자는 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오후 9시 40분께 총격으로 인한 부상으로 숨졌다. 차 안에 같이 타고 있던 한 여성도 경상을 입었으며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구금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한 명도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치료 후 퇴원했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스위스서 10대 도끼공격으로 부상자 발생

스위스 북동부의 작은 도시 플룸스에서 22일 저녁 (현지시간) 17세의 한 소년이 도끼를 휘둘러 여러 명이 다쳤다고 현지 경찰이 발표했다.

라트비아 국적의 이 소년은 범행 후 경찰이 총기를 사용해 체포했으며 그 과정에서 부상을 당했다고 상트 갈렌주 경찰은 밝혔다.

이 날 사건은 저녁 8시께 시작되었으며 용의자는 마을 광장에서 여러 명을 도끼로 공격한 다음 훔친 승용차를 타고 달아났다. 이 차는 나중에 사고를 냈으며 용의자는 다시 도보로 달아나다가 주유소에 있는 여러 명을 더 공격하던 중 경찰에 체포되었다고 현지 경찰은 말했다.

경찰은 정확한 부상자의 수와 부상 정도는 밝히지 않았으며 현재 부상자들의 상태가 어느 정도 심각한가를 조사 중이라고만 말했다.

10대 용의자는 단독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 있으며 테러조직의 배경도 드러난 것이 없다고 경찰은 말하고 있다. 범행 동기 역시 아직은 밝혀진 것이 없다.

실종된 미 텍사스주 세살배기 시신 발견

텍사스주 경찰이 이 달 초 실종된 세살바기 여자 아기의 시신을 댈러스 교외에 있는 아이의 집 근처에서 22일 새벽(현지 시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리처드슨 경찰은 수색견들을 이용해 실종된 셰린 매슈스(3)의 시신을 찾던 중 시신이 한 배수로 안에서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아버지 에슬리 매슈스는 경찰에 신고할 때 지난 7일 아이가 우유를 잘 먹지 않아서 벌로 집 울타리 밖의 한 나무 옆에 세워두었는데 사라졌다고 말했었다.

이 아빠는 어린이를 위험에 빠뜨린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 기소되었다.

경찰은 발견된 아이 시신이 명확하게 신원이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다른 아이라고 믿을만한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뉴시스